

복지부 인증받은
두보살 '회향의 삶'

“시각을 왜 따져요? 은퇴없는 직업인걸...”

◇“어르신들 모두가 부처님처럼 보여요...” 조복행 보살이 정성스럽게 파김치를 잘라 반찬 접시에 담는다.



자원봉사.

봉사가 학점으로 계산되거나 처벌의 다른 형식으로 여겨지기도 하는 요즘, 회향의 한 방식으로 봉사활동을 펼치는 사람들이 있다. 다른 이를 위해 일하는 것이 곧 자신의 가슴에 따뜻한 불씨를 지피는 것이라고 믿고 있는 아름다운 사람들. 2001년 자원봉사인증제가 시행된 이래 가장 많은 조복행 보살과 이에 못지 않은 1000시간 봉사시간을 달성한 정서옥 보살의 이야기를 들어본다.

자원봉사인증제란?

2001년 11월 보건복지부가 사회복지분야 자원봉사 활성화를 위해 도입한 자원봉사인증제는 자원봉사자들의 개인별 활동실적을 인증, 관리하고 인증된 봉사실적에 대해서는 당사자가 원할 경우 자원봉사서비스를 되돌려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제도다. 또한 봉사자별로 봉사시간을 데이터베이스화해 일정 기준이 넘는 사람에게 금배지(봉사시간 1000시간 이상), 은배지(5백시간), 녹배지(2백시간) 등을 지급하고, 자원봉사품앗이 제도를 도입해 50시간 이상 봉사실적이 있는 봉사자는 실제 시간 내에서 타인으로부터 봉사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제도다.

개인별 봉사실적 인증·관리, 원할 땐 서비스 되돌려 받아

◇“30년을 ‘봉사하는 직업’ 간호사로 살아온 정서옥 씨. 이제 그는 ‘은퇴 없는 직업’인 자원봉사자로서의 삶을 살고 있다. 사진=박재완 기자



자원봉사와 조복행 보살

(송파재가노인복지센터 경로식당)

11일 점심시간을 앞 둔 서울 송파재가노인복지센터 경로식당. 식사 준비를 하는 자원봉사자들의 손놀림이 분주하다. 잠시 한 눈 팔 새도 없이 콩나물을 무치고, 오이를 썰어 소박이를 만든다. 무의탁 노인 100여 명을 위한 점심식사. 메뉴는 된장국에 밥, 김치와 콩나물 등이지만, 의지할 데 없는 노인들은 이 한 끼의 식사가 너무 소중하다. 10여 명의 자원봉사자 보살들도 이런 노인들의 사랑을 알기에 조금이라도 맛깔스러운 음식을 만들고 싶다. 어느덧 10년이 흘렀다. 하지만 송파재가노인복지센터에는 변하는 게 없다. 어려운 사람과 함께 하겠다는 불자 자원봉사자들의 굳은 서원과 변함없는 조복행 보살(55·법명 원만성)의 정성. 조 보살은 이곳에서 10년째 무의탁 노인을 위한 무료급식 음식조리, 도시락 및 반찬 만들기, 시장 보기 등을 하는 중이다. 요새 조 보살에게는 부끄러운 일이 하나 생겼다. 그것은 지난해 가을 자원봉사 활동을 한 공로로 보건복지부장관상을 받으면서 시작했다. 최근에는 봉사활동을 오래 했다고 신문 지면에도 몇 번 오르내렸고 2001년 자원봉사인증제가 시작된 이래로 주당 3일, 하루 평균 5-6시간씩 4200여 시간 동안 봉사에 ‘자원봉사왕’

무의탁노인 점심준비 10년째 봉사활동
“일손 도움것 뿐인데”... ‘봉사왕’ 호칭 겸손

이란 호칭까지 얻게 된 것이다. “여기서 일하게 된 것은 이곳 일손이 부족하기 때문인데 이렇게 관심이 쏟아지니 얼굴을 못 들고 다니겠어요.” 조 보살이 자원봉사활동을 시작한 계기는 단순하다. 94년 우연히 송파재가노인복지센터 개원 소식을 알게 된 조 보살은 개원 법회에 참석했고 독거노인들을 돕자는 각현 스님의 법문에 감화를 받아 봉사활동을 하게 10년이다. “스님의 법문이 너무 강하게 마음에 와 닿아 법회에 참석하다보니 주말 일을 하게 된 거죠.” 조 보살이 자원봉사에 눈을 뜬 것은 두 스님을 만났기 때문이다. 연꽃마을 이사장 각현 스님은 생활법문으로 봉사활동과 수행이 둘이 아님을 일깨워주었다. 쌍계사 조실 고산스님은 젊은 조 보살이 앓고 있던 마음의 병을 법문으로 치유해 주었다. 조 보살은 아직 제대로 된 수행을 해 본 적이 없다고 겸손해 한다. “봉사활동을 하다 보니 시간을 내기가 어려웠기 때문이란다. ‘선방에서 법복을 입고 수행하는 노인들을 보면 정말 부러워요. 저도 마지막으로 갈 때는 저런 모습이었으면 해요.’ 강유신 기자 shanmok@buddhapia.com

봉사 1천 시간 정서옥 간호사

(은평노인복지관 진료실)

11일 서울시립은평노인복지관 진료실. 간호사 정서옥(66·법명 성불화) 씨가 벌써 6시간째 어르신들을 돌보고 있었다. 맥박과 혈압을 재고, 상처를 소독하고 처방한 약을 정리하는 일은 간호사 경력 30년의 그에게겐 머리카락이 먼저 익힌 일이다. 1968년 육군병원 부설 간호학교를 졸업한 정 씨는 서울 서대문구보건소와 서울시립서대문병원 등에서 공무원 생활을 했다. 아이를 키우느라 잠시 휴직했던 때를 제외하곤 정 씨는 언제나 ‘간호사’로 살았다. 1998년 6월 정년 퇴임한 그는 일을 계속해 보라는 병원의 제의도 물리치고 인덕원의 치매노인보호소를 찾았다. “평생 나라의 녹을 먹고 살았으니, 이제 그 빚을 갚아야 하지 않겠느냐”는 정 씨는 “전문성을 살리면서 다른 사람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는 일”을 찾았다. 그것이 바로 간호봉사활동이었다. 봉사활동은 기독교인이었던 그를 불자로 이끌기도 했다. 인덕원에서 ‘남은 생애에 꼭 알아야 할 귀중한 법’을 만난 정 씨는 삼천사에서 법명 ‘성불화’를 받았다. 매일 108배와 금강경 독송으로 하루를 열던 정 씨는 1999년 문을 연 은평노인복지관 진료실을 맡게 되었다. 처방양식 만드는 일

퇴직후 봉사하며 ‘귀중한 법’ 만나
불자로서 배운 것 배웠고 가는 삶 서원

과 약 구입부터 시작해 지금의 모습으로 자리 잡기까지의 고생은 그에게 또 다른 보람이었다. 처음에는 “공짜 약인데 괜찮은거냐, 진짜 간호사냐”며 못마땅히 하던 어르신들도 정 씨의 열성적인 활동에 차츰 마음의 문을 열고 믿고 찾아오게 됐다. 벌써 5년째 어르신들 건강을 돌보고 있는 그이기에, 퇴근시간이 지나도 자리를 쉽게 비우지 못한다. 단순히 약을 주고 상처를 치료하는 것만 아니라 어르신들의 자식고민, 생계고민을 들어주는 말벗이 되기도 하고 상담자가 되기도 한다. 지난 2월 봉사활동 1000시간 인증도 그이젠 “금배지 하나 받은 것” 이상의 의미가 없다. “간호사라는 직업 자체가 바로 봉사”라는 정 씨는 “봉사활동을 통해 평생 배운 것을 배웠고 가는 불자로서의 삶을 살게 되었다는 사실이 더 소중하다”고 말한다. 봉사활동 외에 또 하나 정 씨가 욕심내는 것이 있다. 바로 동양화다. 매일 목요일이면 복지관 문화센터에서 그림을 그리고 붓글씨를 쓴다. “나를 되돌아보는 시간을 갖기 위해 붓을 잡았다”는 정 씨는 자신이 입은 하얀 가운만큼이나 밝은 미소를 짓는다. 여수령 기자 snoopy@buddhapia.com

禪으로 이끄는 스승의 간곡한 편지

도도는 말이 없으나 말이 아니면 도가 드러나지 않으며, 마음은 모양이 없으나 모양을 통하지 않으면 마음이 있는 지 알 수가 없다. 그러므로 말이 곧 도이며, 모양이 곧 마음이다.

『서장書狀』은 『대혜서大慧書』, 『대혜서문大慧書問』 등으로도 불리는 책으로 대혜종고(1089-1163) 스님이 문하의 거사와 유학자들의 질문에 답하여 선종의 요지를 설명한 편지글을 모은 것이다.

임제종 양기파에 속하는 중국 남송 시대의 스님인 대혜종고는 묵조선默照禪을 배격하고 간화선을 제창하였기 때문에, 간화선의 전통을 이은 한국 불교에서는 가장 중요한 인물이다.

간화선을 재고하고자 하는 목소리가높은 요즘이야말로 간화선의 교과서로 불리는 『서장』 공부로 통하여 선의 본질에 대해 철저히 파고 들어가야 할 것이다.

대혜종고 저음 · 김태환 해설 / 신국판 / 값 8,000원

선을 공부하는 지침서로서 『서장』의 장점

- 조사선과 간화선의 본질을 잘 밝히고 있다.
- 조사선이나 간화선이나 하는 말은 시대적인 의미가 부여된 명칭일 뿐이고, 요컨대 선이란 곧 깨달음을 본질로 한다. 『서장』에서 가장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것은 깨달음을 무엇이며, 어떻게 체험되는가라는 주제에 대한 다양한 각도에서의 설명이다. 이 점에서 『서장』은 종교를 초월하여 깨달음을 추구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올바른 길을 안내해 준다.
- 선 공부를 어떻게 할 것인가라는 물음에 대한 선 공부의 지침서이다. 서장에 실린 대혜종고의 편지글은 모두 ‘선을 어떻게 공부할 것인가?’라는 질문에 대한 답변으로 작성된 것들이다. 답변의 상대는 주로 거사들이지만 승려와 여성도 있어서 다양한 공부인들을 대상으로 선문답門問으로 들어가는 올바른 길을 가르치고 있다.
- 공부에 관한 지도가 매우 구체적이고 친절하다. 공부의 지침서로서 『서장』의 무엇보다 큰 장점은 그 가르침이 매우 구체적이고 상세하다는 것이다. 가르침이 구체적이고 상세한 것은 대혜의 인목眼目이 그만큼 깊고 정확함을 보여 주는 것이다.
- 율지 않은 견해와 잘못된 공부의 여러 사례를 열거하여 그 문제점을 정확히 지적하고 동시에 올바른 견해와 공부의 길을 보여 주고 있다.

이 책에서는 『서장』에 실린 62편의 편지 가운데 50편을 선정하여 각 편지에서 피력된 주요한 가르침들을 주제로 삼아, 그 내용을 더욱 알기 쉽고 상세하게 강의하고 있다.

여시이론 서울시 종로구 견지동 110-33 Tel 02-732-1521 / Fax 02-737-0696

대혜종고 저음 · 김태환 해설 / 신국판 / 값 8,000원